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나한품(羅漢品) ②

如空中鳥 여공중조
 遠逝無碍 원서무애
 世間習盡 세간습진
 不復仰食 불부양식

공중에 나는새가
 멀고 가까움에 걸림 없듯이
 세간의 온갖 습이 다 떨어져
 다시는 세간행을 우러르지 않는다

虛心無慮 허심무환
 已到脫處 이도탈처
 譬如飛鳥 비여비조
 斷下斷逝 잡하침서

마음 비워 근심없으니
 이미 저 언덕에 이르렀도다
 마치 저 나르는 새가
 잠시 내렸다가 이내 가는지 처럼

制戒從止 제금지
 如馬調御 여마조어
 捨捨慢習 사교만습
 爲天所敬 위천소경

육군을 제어해 할떡이 쉬니

“일천글귀 외워도 뜻 제대로 모르면 단 한마디 법구들어 번뇌쉽만 못하다”

마치 잘 길들여진 말과 같아
 교만한 습 다 버렸네
 하늘이 존경하는 이로세

不怒如地 불로여지
 不動如山 부동여산
 眞人無妬 진인무구
 生死世絶 생사세절

저 대지 같아 성내지 않고
 저 산과 같아 움직이지 않으니
 참 사람은 티없이 맑아
 나고 죽는 세간법 끊어졌도다

心已休息 심이휴식
 言行亦止 언행역지
 從正解脫 종정해탈
 寂然離滅 적연귀멸

마음은 이미 고요히 쉬고
 언행 또한 물들지 않았으니
 바른 길따라 해탈 하여서
 본바탕 그대로 적멸에 들었네

塵欲無著 가욕무착
 缺三界障 결삼계장
 望塵已絕 망의이절
 是謂上人 시위상인

욕심을 버려 집착이 없고
 삼계의 장애에서 벗어나니
 바람도 욕심도 끊어져
 이아말로 가장 뛰어난 사람일세

在聚若野 재취약야
 平地高岸 평지고안
 應眞所過 응진소과
 莫不蒙祐 막불몽우

마을에 있거나 들에 있거나
 평지에 있거나 높은 산에 있거나
 아라한이 지나는 곳에
 누구든 은혜 입지 않으랴

彼樂空寂 피락공한
 衆人不能 중인불능
 快哉無望 쾌재무망
 無所欲求 무소욕구

아라한은 고요한 곳 좋아하니
 보통 사람 그렇게 할 수 없는 일
 상쾌하기도, 바람 없었이어
 아무것도 구할 것이 없었으므로

술천품(述千品) ①

雖誦千言 수송천언
 句義不正 구의부정

“일천글귀 외워도 뜻 제대로 모르면 단 한마디 법구들어 번뇌쉽만 못하다”

마치 잘 길들여진 말과 같아
 교만한 습 다 버렸네
 하늘이 존경하는 이로세

不怒如地 불로여지
 不動如山 부동여산
 眞人無妬 진인무구
 生死世絶 생사세절

저 대지 같아 성내지 않고
 저 산과 같아 움직이지 않으니
 참 사람은 티없이 맑아
 나고 죽는 세간법 끊어졌도다

心已休息 심이휴식
 言行亦止 언행역지
 從正解脫 종정해탈
 寂然離滅 적연귀멸

마음은 이미 고요히 쉬고
 언행 또한 물들지 않았으니
 바른 길따라 해탈 하여서
 본바탕 그대로 적멸에 들었네

塵欲無著 가욕무착
 缺三界障 결삼계장
 望塵已絶 망의이절
 是謂上人 시위상인

아무리 많은 경귀를 외우더라도
 제대로 뜻을 모르면 무에 이익이라
 단 하나의 법구라도 알아서
 그대로 실천하면 도에 이르리라

아무리 많은 경귀를 외우더라도
 제대로 뜻을 모르면 무에 이익이라
 단 하나의 법구라도 알아서
 그대로 실천하면 도에 이르리라

龍眼

송월스님 (해인사 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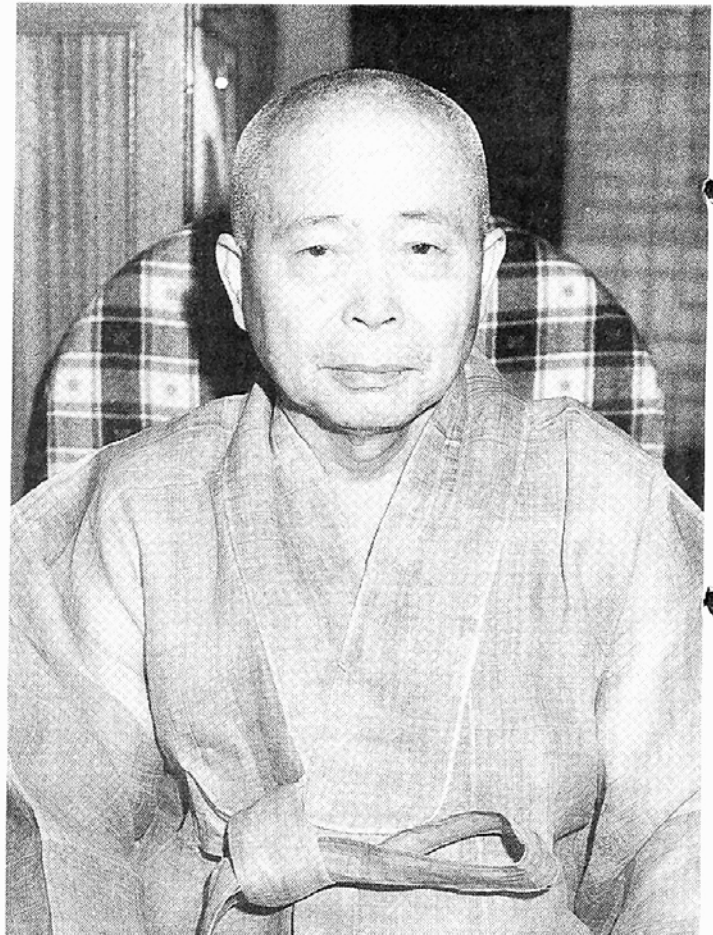
“한국화를 여백의 예술이라 합니다
 여백은 빈공간아닌 조화의 아름다움
 드러내지 않고 제역할 다합니다”

어릴적부터 붓글씨에 소질 있다는 얘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입산하고 나서 붓을 놓았다가 1953년 무렵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내면에서 끝없이 글씨를 쓰고 난(蘭)을 치고 싶다는 충동이 솟구쳤지요. 전통예술을 이어야겠다는 바람도 그때 생겼습니다. 무념으로 하얀 종이에 새로운 생명력을 일깨운다는것은 생각만으로도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적적묵묵(寂寂默默)한 산사에서 붓따라 심상(心象)을 옮기다 보면 어느새 풀벌레 소리와 바람 소리가 방안을 맴돌다 돌아나간 듯합니다. 평소 좌선을 하거나 생활을 하다가로 붓을 들다보면 심기가 가라앉아 마음을 평정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나 50년대까지만 해도 관련 서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군자를 치고 싶어도 교재가 없다보니 발전이 되지 않았지요. 그러다 65년 한일국교정상화가 이뤄지면서 일본에서 관련서적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일일이 번역해 가면서 공부를 했지요. 그러나 곧 함께 다다랐습니다. 서예는 지식으로만 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식으로 익힌 서도는 구두선(口頭禪)밖에 더 되겠습니까? 결국 선생을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해강(海剛) 김구진선생의 아드님이신 청강(淸江) 김영기선생을 찾아 갔습니다. 해강선생은 해인총림의 일주문 현판글씨와 주련글씨를 다수 쓰신 당대의 서예가입니다. 그런 인연으로 청강선생을 찾게 된겁니다. 청강선생은 해강선생의 필법을 전수받았을뿐만 아니라 중국 북경대를 나온 분입니다. 또한 대한미술원을 설립하여 한국화라는 명칭을 사용할 것을 처음으로 주장한 분이기도 합니다. 한국화를 192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서화(書畵)로 불렀습니다. 그러다 서양화가 들어오면서부터 일제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만 애매모호하게 동양화란 용어가 쓰이게 된겁니다. 우리그림의 정통성과 역사성을 철저하게 배제시키려는 문화식민 정책의 일환이었지요. 매주 한차례 김영기선생 댁을 방문하여 1시간정도 배웠습니다. 절반 이상의

시간은 먹을 가는데 소모되었습니다. 그저 어깨너머로 배운셈이지요. 6개월가량 다니면서 기초를 다질수 있었습니다. 무엇이든 기초가 제일 중요합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좋은 결과가 나오느라지요. 기초를 정립한 이후에는 스스로 문리를 터득해서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경치

- 1925년 경남 합천생
- 45년 해인사 해인스님 은사로 경성스님을 사미계사로 득도
- 47년 상월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수지
- 1~6대 중앙종회의원 역임
- 명봉사 김용시등 주지역임
- 불교전국미술전에서 다수 특선 및 입선. 사군자 서예개인전(9회). 미국 샌프란시스코 아시아 박물관 書竹 작품 2점 소장. 작품으로 해인사 청화당·우화당·진영각·경주 기림사 법종각·대구 선봉사 극락전 현액등 다수.



“무념으로 백지에 심상 옮기면
 마음은 어느새 평정 되찾아요
 참선도 서예하듯 하세요”

를 개척해야 합니다. 나는 화두참선을 하는 분들에게 서예공부를 권합니다. 여러모로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운문 사강원에서는 정규교과로 채택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거기서는 강의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한글자씩 의무적으로 쓴다고 들었습니다.

나는 매란국죽(梅蘭菊竹) 사군자를 즐겨 칩니다. 그중에서도 죽(竹)을 가장 좋아합니다. 보통 처음에 난을 배우고 다음에 죽을 배우게 됩니다. 죽(竹)은 사시(四時)에 푸른 탈속의(脫俗)의 취향으로 인해 사군자중의 군자로 불려왔습니다. 붓으로 대나무를 치다보면 흔들리던 마

음이 가라앉게 됨을 느낍니다. 같은 끈고속은 텅비어 있어 불퇴전의 용기와 집착 없는 심성을 가진 수행자의 모습이라고나 할까요. 사군자를 수행의 일환으로서 그리면 선화(禪畵)가 됩니다. 참선과 수행이 들어 안된셈입니다. 서예가라면 누구나 완벽한 작품에 대한 의문은 항상 남아 있게 마련이지요. 완벽한 작품 그자체가 하나의 화두일수도 있습니다. 서예는 자신의 마음상태를 점검할수 있는 수단으로도 활용할수 있습니다. 화두가 성성해질수록, 삼의 너비와 깊이가 더해갈수록 작품도 거기에 응하여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작품에는 수행의 정도

와 심리, 인격의 수준이 묻어나 있습니다. 기운생동(氣運生動)하는 작품은 기쁨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작가의 마음이 바탕이 되어야 하지요. 형식상으로도 서예는 정신과 풍채를 우선시하고 형태와 바탕을 다음으로 칩니다. 옛선비들은 서예를 단순히 그리려는 목적에 인격도야를 위한 수양의 방편으로 삼았습니다. 지필묵을 늘 가까이 두고 틀니는대로 붓을 들었던것입니다. 서화를 통해 마음을 다스리고 나아가 고고하고 격조높은 정신세계를 추구했지요.

한국화에서는 사실적인 묘사보다는 작가의 지향하는바 이상세계가 얼마나 잘 나타나 있느냐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추사 김정희선생은 무(無)자 화두를 타파한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계를 넘어서기전과 넘어선후의 글씨는 완연하게 다릅니다. 글의 위세가 크게 다르지요. 추사의 글이나 그림에서 생동하는 기상을 담할지는 정후후무합니다. 일반적으로 서화에서 최고의 경지에 다다른자를 일품(逸品)이라고 합니다. 추사선생은 그보다 더 높은 도품(道品)이라해야 옳

홍화마을

홍화씨로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식품 의약품안전국(F.D.A)
품질공인!!

홍화씨의 효능은
 이제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민속 홍화씨
 작목반 박래환

TEL 053)943-9371
 FAX 053)943-9371

피안으로 이끄는 사자후

1집 500,000 독자의
 성원에 힘입어
 2집을 발간했습니다.
 탄허선사의 법문은
 언제나 동양사상을
 전폭적으로 수용합니다.

삶의 지혜를 얻고 싶습니까.
 선사의 법어집을 보십시오.
 한번 읽고 버리는 책이
 결코 아닙니다.

탄허불교문화재단 도서 출판 교림

종로구 경운동 64-4 건국빌딩 본관 202호
 Tel 733-3334, 733-3359

“佛塔다라니로서 스님과 불자들이 실제 겪었던 영험 사례집 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불탑다라니를 사용하면 실제로 불가사의한 영험력이 일어나는 것일까?”

불가신 분들에게 믿어주고 싶어하여 극락왕생을 기원했던 금강경 다라니. 이 불탑다라니를 현재에서 우리가 사용한다면? 살이있는 동안에 극락을 찾고 소원을 성취하고 일체재해를 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여러스님들이 방편으로 시도해보았던 불탑다라니에서, 상시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스럽고 불가사의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은 무엇으로 설명을 할 것인가?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럼으로 이러한 불가사의한 일들은 규명하고자 하기보다는 한가닥 의심없이 믿고 행함으로써 실제로 체험해보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진심으로 믿거나 불보살님의 위신력을 믿는 불자라면, 부처님의 위대한 경건을 100% 경건주사를 사용하여 조성한 금강경 신탑다라니와 묘법연화경 다라니다라니,地藏보살본원경 사경본의 위신력을 충분히 믿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동안 300여 사찰에서 주로 스님들을 통하여 불자들에게 보급되어온 본회의 불탑다라니는 사용한 불자들의 대부분이 한결같이 그 불가사의하고도 신비스러운 영험력을 직접 체험 하였고 스님들이 전해줌으로써, 본회에서는 그 사례들 중에서 대략적인 것만 모아 책자를 만들어 인연있는 스님과 불자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스님들에게는 : 스님용책자와 신도용책자를 무료로 함께 보내드립니다.
 1. 본회의 금강경 신탑다라니에서 계속적으로 방출된 신비스러운 기를 이용하여 인간의 운세와 길흉화복을 80%이상 적중시킬수 있는 기(氣)테스트 방법 수록.
 2. 불가사의한 영험력이 일어나 소원이 성취되는 불탑다라니 사용방법과 상세한 처방전.
 3.地藏경 사경본을 이용한 조상대대 친족연속 일체재영가 천도방법.
 4. 수자영가를 각각 불명을 지어 확실하게 천도시켜 주는 방법.
 5. 불탑다라니로서 조상님의 산소를 후손이 받들하는 명당자리로 만들어 주는 방법.
 6. 이물없는 영가의 불명짓는 방법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불자님들께 : 불탑다라니를 사용하여 실제로 일어난 영험록 사례집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1. 이르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는 분
 2. 대학입시생을 둔 학부모.
 3. 각종질병이나 원인을 병으로 고통받는 분.
 4. 정신질환이 있는 분.
 5. 사업이 부진하거나 실패한 분.
 6. 가정불화를 겪고 있는 분.
 7. 집안어 관재가 있는 분.
 8. 집안이 이상하게 시끄럽거나 잠이안드는 분
 9. 고사나 승진시험을 앞 둔 분들은 꼭 받아보십시오.